

# AI 학습 혁신으로 하나 되는 4대 캠퍼스

## 글로벌대학 30 사업과 강원도 국립대 통합의 미래 과제

**AI-Powered Learning Innovation Uniting Four Campuses:  
Future Challenges for the Glocal University 30 Initiative and Integrating  
Gangwon State's National Universities**

강동석 국립 강원원주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professional@gwnu.ac.kr, paper2black@gmail.com

\* 강동석 교수는 2024년부터 강원원주대학교(강릉캠퍼스)에서 교무부처장, 교수학습센터장으로 재직 중임  
\*\* 이 글은 저자의 개인 의견이며, 관련 기관(강원대, 강원원주대)의 공식 입장이 아님



## Executive Summary

한국은 생산 가능 인구와 학령인구의 지속적인 감소 그리고 생성형 인공지능(AI)으로 인한 학습 혁신이 함께 몰아치면서, 전국 대학교의 구조 조정과 고등 교육 개혁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대응하여 교육부는 2023년부터 ‘글로벌(Glocal)대학 30’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지역 사회와 함께 경쟁력을 키울 비수도권 대학 30곳을 선정 및 지원하고 있다.

이번 글에서는 글로벌대학 30 사업의 추진 배경과 주요 내용을 먼저 살펴본 후, 2023년 처음 선정된 대학교 가운데 강원대학교와 강릉원주대학교의 공동 사업 계획(강원 1도 1국립대의 거버넌스 혁신 모델)을 분석한다. 강원대-강릉원주대의 사업은 2023년 글로벌대학 30에 선정된 사업 중에서 가장 큰 규모의 대학교 통합 사례(4개 캠퍼스와 재학생 3만 명, 교수 1,400명)로 주목받았다. 두 대학교는 2026년 3월 출범 예정인 ‘강원 1도 1국립대(통합 강원대)’ 계획과 연계하여 국립대가 주도하는 AI 기반 학습 플랫폼과 지산학연(地産學硏) 생태계를 구축해, 강원특별자치도의 혁신을 이끌어낼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이다.

본 사업에는 5년간(2023~2027년) 총 1,500억 원의 글로벌대학 사업비가 투입되며, 국고와 지방비 등을 모두 포함하면 총 3,622억 원의 재정 투자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본 재원은 강릉·원주·춘천·삼척 등 4개 캠퍼스를 지역 특화 산업에 맞춰 발전시키기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 본 사업은 ‘공유·통합·연합’이라는 3대 원칙과 함께, 3대 장벽 허물기(①전공과 학과 간 장벽, ②캠퍼스 간 장벽, ③캠퍼스와 지역 사회 간 장벽 제거)를 핵심 과제로 설정하고 있다. 특히, 4개 캠퍼스별 특성화를 유지하면서 학생들의 다양한 성공 경험을 함께 지원하기 위해, 본 사업은 AI 기반 맞춤형 학습기록시스템(Learning Record Store, LRS)을 구축할 계획이다.

그러나 본 사업 추진에 따라 수도권과 가까운 영서와 영동 지역 간 격차 심화, 캠퍼스 내·외 유사 전공 간 구조 조정 문제 등 해결해야 할 지역 현안들이 많이 남아 있다. 사업이 중반에 접어든 현재, 강원대와 강릉원주대는 긴밀한 협력과 상호 양보를 통해 목표한 성과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강원도 내 다른 대학들과도 협력하여 양 대학은 이번 사업을 통해 강원도 전역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극대화해야 한다.

\* 핵심어: 글로벌대학 30, 강원대, 강릉원주대, 지역혁신, AI 기반 학습, 강원도

South Korea is urgently in need of university restructuring and higher education innovation, as it grapples simultaneously with the continued decline in both its working-age and school-age populations, alongside disruptive learning innovations driven by generative artificial intelligence(AI). To address these challenges, the Ministry of Education launched the ‘Glocal University 30’ initiative in 2023, selecting and supporting 30 non-metropolitan universities to build regional competitiveness in partnership with local communities.

This article first examines the background and key features of the Glocal University 30 project, then analyzes the joint project plan of Kangwon National University(KNU) and Gangneung-Wonju National University(GWNU)—both newly chosen for the program in 2023. The project has gained great attention as the largest Korean university integration case among the projects selected for the Glocal University 30 initiative in 2023, involving four campuses and approximately 20,000 students. These two universities are currently developing various programs to drive innovation in Gangwon State by establishing an AI learning platform led by national universities and an industry-academia-research ecosystem. These efforts are linked to the “One National University in Gangwon State (Integrated Kangwon National University)” plan, which is set to officially launch in March 2026.

Over five years(2023~2027), this project will allocate 150 billion Korean Won, and the total financial investment—when including national and local government support—could reach 362.2 billion Korean Won. This funding will be directed toward developing four campuses(in Gangneung, Wonju, Chuncheon, and Samcheok) in ways that align with region-specific industries. To accomplish these goals, the project has established three major principles—“sharing,” “integration,” and “alliance”—alongside the goal of removing three key barriers: ①between majors/departments, ②between campuses, and ③between campuses and local communities. In particular, the project plans to build an AI-based personalized learning record system, aiming to maintain each campus’s unique specialization while supporting students’ diverse success experienc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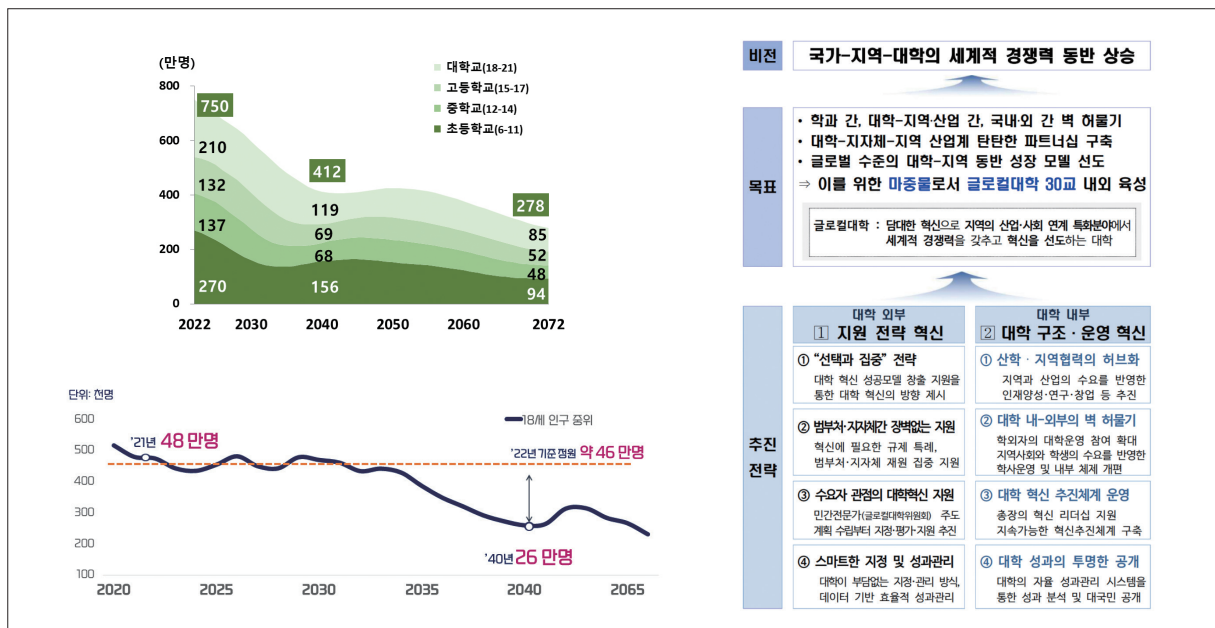
Nonetheless, several regional issues still need to be addressed—such as the potential widening gap between the Yeongseo region(closer to the Seoul metropolitan area) and the Yeongdong region in Gangwon State, as well as the need for restructuring similar majors both within and across campuses. With the project now at its midpoint, KNU and GWNU must collaborate closely and make mutual concessions to realize their intended outcomes. Furthermore, they must also work in partnership with other universities across the State to maximize the project’s positive impact throughout the entire region.

\* **Keywords:** Glocal University 30, Kangwon National University, Gangneung-Wonju National University, Regional Innovation, AI based learning, Gangwon State

## 배경: 한국의 학령인구 감소와 교육부의 글로벌대학 30 사업 추진

- 한국은 생산 가능 인구(만 16~64세)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저출산에 따른 학령 인구의 급감으로 인하여 대학교 통폐합 등 고등 교육의 구조 조정, 생성형 AI 등장으로 촉발된 교육 및 학습 혁신의 시대 과제에 직면함(그림 1 참조)
- 학령인구(6~21세)는 2022년 인구(750만 명) 대비 2040년은 58.9% 수준인 412만 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며, 대학교 학령인구(18~21세)는 2022년(210만 명) 대비 2040년은 56.6%인 119만 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
- 특히 대학교 학령인구의 감소는 심각한 상황이며, 2040년의 학령인구는 2022년 전국 대학교 정원(46만 명) 대비 56.5%인 26만 명으로, 20만 명의 정원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됨
- 이러한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위험을 해결하기 위하여 교육부는 지역 내 산재한 대학들의 자율적인 구조 조정, 지역 사회·경제를 살리는 대학교의 혁신 역할과 책무를 동시에 강화하는 글로벌대학 30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볼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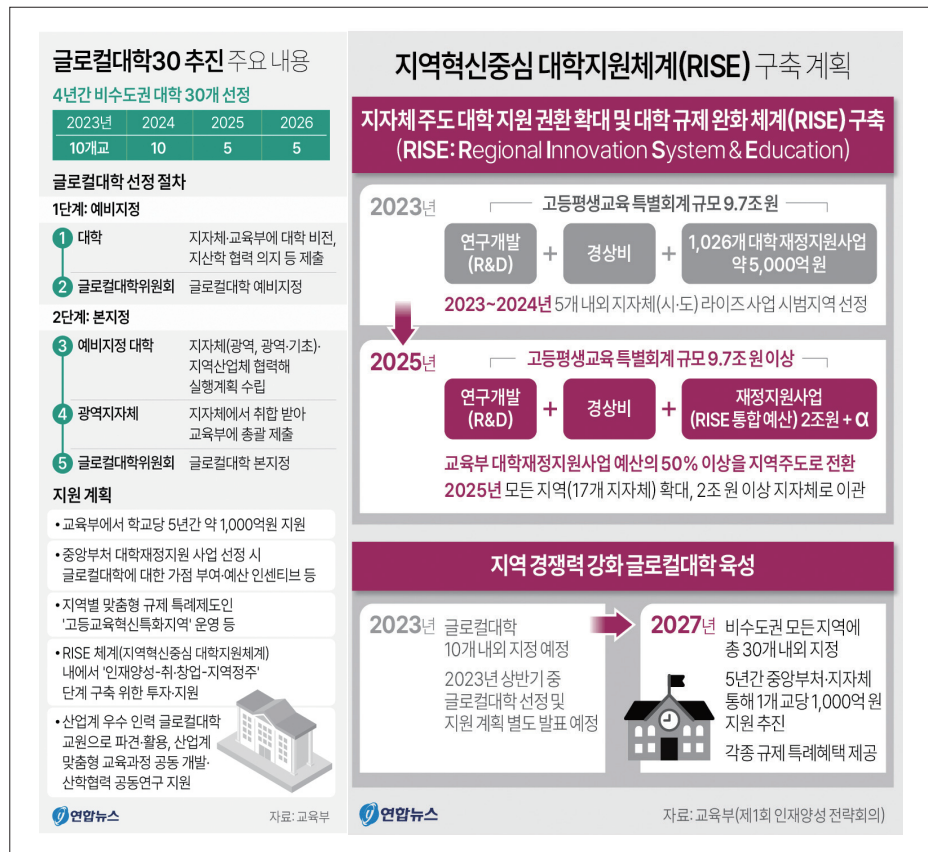
■ 그림 1 - 학령인구 감소 전망과 교육부의 글로벌대학 30 사업의 추진 계획



\* 각급 학령인구는 중위수로 추정된 값  
출처: 통계청(2023), 교육부(2023) 자료 편집

- **글로벌대학 30 사업은 지역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Regional Innovation System & Education, RISE)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으며, 두 사업 모두 지역의 혁신과 경제 활성화를 주도하는 대학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함(그림 2 참조)**
- 글로벌대학 30 사업은 4년 동안(2023~2026년) 비수도권 30개 대학을 선정하는 교육부 사업으로, 선정된 대학은 5년간 1,000억 원의 예산을 지원받으며, RISE 체계 안에서 지역에 기여하고 정주할 수 있는 우수 인재를 양성하고 취·창업을 독려하는 것을 목표로 함
- RISE 사업은 기존의 RIS(Regional Innovation System) 체계에서 교육 및 인재 양성을 통합한 방식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대학교 지원을 주도하고 그에 따라 대학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되며, 2025년 14개 광역시·도(비수도권)에 모두 적용되고, 교육부 관련 예산(2조 원 이상)을 지자체로 이관할 계획임

■ **그림 2 - 글로벌대학 30 사업과 지역혁신 중심 학지원체계(RISE) 소개**



출처: 원형민(2023), 이재운(2023) 자료 편집



- 본 글은 글로벌대학 30 사업에 선정된 대학 사업들을 소개하고, 강원대학교와 강릉원주 대학교가 공동 기획하여 선정된 사업을 중점 분석함
- 강원대-강릉원주대의 사업은 2023년 글로벌대학 30에 선정된 사업 중에서 가장 큰 규모의 대학교 통합 사례(4개 캠퍼스와 재학생 3만 명, 교수 1,400명)로 주목받았으며, 2024년부터 국립대 통합의 신호탄이자 글로벌 30 대학 사업 선정을 위한 핵심 조건 중 하나로 인정받아 왔음
- 강원도는 경상권, 전라권에 이어 저출산과 고령화가 가속화되는 광역시·도로서 대학교 통합을 통한 지역 고등 교육의 구조 조정과 혁신을 통한 지역 소멸 위험 극복이 절실한 상황임
- 이와 같이 현재 가장 큰 규모의 국립대 통합 추진이라는 점과 저출산 및 고령화가 우려되는 상황 등을 감안할 때, 현재 진행형인 강원대-강릉원주대의 사업은 특수하며 중요성과 긴급성이 높다고 볼 수 있음
- 2장은 2023~2024년 선정된 지역과 대학교의 제안사업들과 주요 특징을 제시함
- 3장은 강원대-강릉원주대의 글로벌대학 사업의 비전과 목표, 세부 사업 및 예산 편성과 지역 협력 방안에 대해 분석함
- 4장은 본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영동 지역에서 제기하는 여러 이슈와 현안 및 향후 과제들을 제안함

## 2023~2024년 글로벌대학 30 사업의 선정 결과 분석

- 글로벌대학 30 사업은 2023~2024년 각각 10개 사업을 선정하였으며, 1차 연도(2023년)는 비교적 전국 범위에서, 2차 연도는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통합 및 연합, 단독 사업 추진을 계획한 대학들이 선발되었음(그림 3 참조)
- 2023년에는 국립대 간 통합 사업 (강원대-강릉원주대, 충북대-한국교통대, 부산대-부산교대, 안동대-경북도립대 등 4건) 및 국립대 제안사업 등을 중심으로 사업이 선정되었음
- 2024년에는 국립대 통합 후 사립대 연합(국립 창원대 등), 전문대 연합(대전보건대 등), 사립대 통합(원광대-원광보건대), 사립대 연합(동아대-동서대) 등 사립대와 전문대 참여를 중심으로 사업이 선발되었음

- 2023년 글로벌대학 30 사업은 총 10건으로 총 14개 대학교가 선정되었으며, 강원도와 경상북도에서 각각 2개 사업으로 가장 많이 선정되었음(표 1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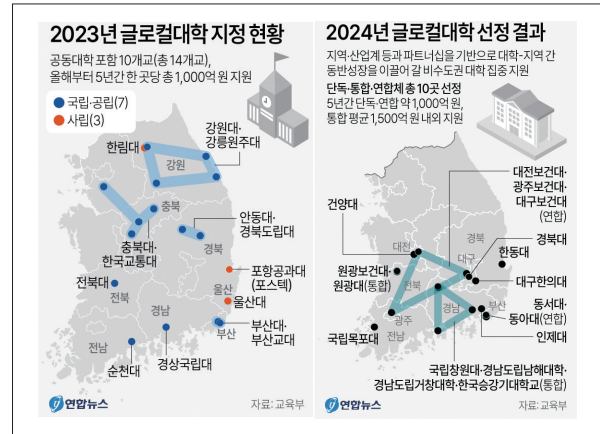
- 챗GPT(ChatGPT) 등장(2022.11.) 이후 선정된 대학교 사업에서 공통적으로 AI를 활용한 학습 혁신과 대학-지역 사회 협력을 추진할 계획임

- 전체 사업(10건)에서 국립대 사업(7건)이 사립대 사업(3건)보다 더 많이 선정되었으며, 비수도권(10개) 중 8개 권역에서 사업이 선발됨

- 국립대 통합 사업은 강원도, 경상북도, 부산시, 충청북도에서 각각 4개 사업이 선정되었음

- 강원권과 경북권은 공통적으로 국립대 통합(강원대-강릉원주대, 안동대-경북도립대)과 사립대 단독(한림대, 포항공과대)으로 각각 1개 사업이 선발되었음

그림 3 - 2023~2024년 글로벌대학 선정 결과(각각 10개교)



출처: 이재윤, 원형민(2023), 원형민(2024) 자료 편집

표 1 - 2023년 글로벌대학 30 사업의 선정 대학: 총 10건 (14개교)

순번	지역	대학교	핵심 혁신과제
1	강원 (2)	강원대-강릉원주대 (강원대 통합)	1도 1국립대의 거버넌스 혁신 모델
2		한림대(사립)	3대 융합 클러스터 중심으로 대학 구조 개편
3	경북 (2)	안동대-경북도립대 (국립 경국대 통합)	경북 7개 교육·연구기관의 공공형 대학
4		포항공과대(사립)	글로벌 창업 퍼시픽 밸리 조성
5	부산	부산대-부산교대 (부산대 통합)	세계적인 EduTech 거점 육성
6	경남	경상국립대	지역 기반 우주항공 방산 허브 대학
7	충북	충북대-한국교통대 (충북대 통합)	국립대 통합 및 캠퍼스별 지역 주력 산업 연계 특성화
8	전북	전북대	지산학연(地産學研) 국제캠퍼스 및 외국인 유학생 적극 유치(‘28. 5천 명)
9	전남	순천대	지역 3대 특화 중심 대학 전면 개편 및 지역 수요에 대응한 실무형 인재
10	울산	울산대(사립)	지산학 펀드 조성 등 대학의 재정 혁신 모델, 멀티캠퍼스(UbiCam)

출처: 교육부(2023b) 자료 정리 및 편집

- 2024년 글로벌대학 30 사업도 총 10건인데 2023년(14개)보다 더 많은 17개 대학교가 선정되었으며, 경남과 경북권에서 각각 2개 사업으로 가장 많이 선발되었음(표 2 참조)
- 2023년과 같이 2개 광역권에서 2개 사업이 선정되었으며(2023년 강원과 경북, 2024년 경남과 경북), 경북은 2년 연속 2개 사업이 선발되었음
- 2023년과 같이 대학교 통합 사업은 경남(국립대 통합 후 사립대 연합), 전북(원광대와 원광보건대, 사립)에서 선정되었음
- 2023년과 달리 전체 사업(10건)에서 사립대 주도 사업(6건)이 국립대 주도 사업(4건)보다 더 많이 선정되었으며, 비수도권(10개) 중 8개 권역에서 사업이 선발됨
- 사립대 주도의 선정 사업에서는 초광역권 전문대 간 연합(대구 등), 경남(국립대와 사립대의 연합), 사립대 단독(4건) 등이 있음

■ 표 2 - 2024년 글로벌대학 30 사업의 선정 대학: 총 10건(17개교)

순번	지역	대학교	핵심 혁신과제
1	경남 (2)	국립 창원대, 경남도립거창대, 경남도립남해대, 한국승강기대 (국립 3, 사립 1)	창원 국가산단의 미래를 선도하는 연구 중심 대학 *국립대 간 통합 및 사립대 연합
2		인제대(사립)	김해시 전체를 캠퍼스화(All City Campus)
3	경북 (2)	대구한의대(사립)	한의학의 과학화·산업화로 지역 산업 육성(K-MEDI) 및 해외 진출
4		한동대(사립)	글로벌 HI(Holistic Intelligence) 교육 플랫폼 구축
5	대구	경북대	대학원 중심의 연구중심대학 전환
6	대구, 광주, 대전	대구보건대, 광주보건대, 대전보건대 (전문대 3: 연합)	보건 의료산업 전문 인력 양성 전문 대학 모델 제시
7	전남	국립 목포대	글로벌 해양 특성화 대학 선도
8	전북	원광대, 원광보건대 (원광대 통합, 사립)	생명산업의 글로벌 거점대학
9	부산	동아대, 동서대 (사립대 연합)	통합 산학협력단 기반 부산시-대학 공동 이익 실현
10	충남	건양대(사립)	국방 산업 중심으로 대학 체제 전환

출처: 교육부(2024) 자료 정리 및 편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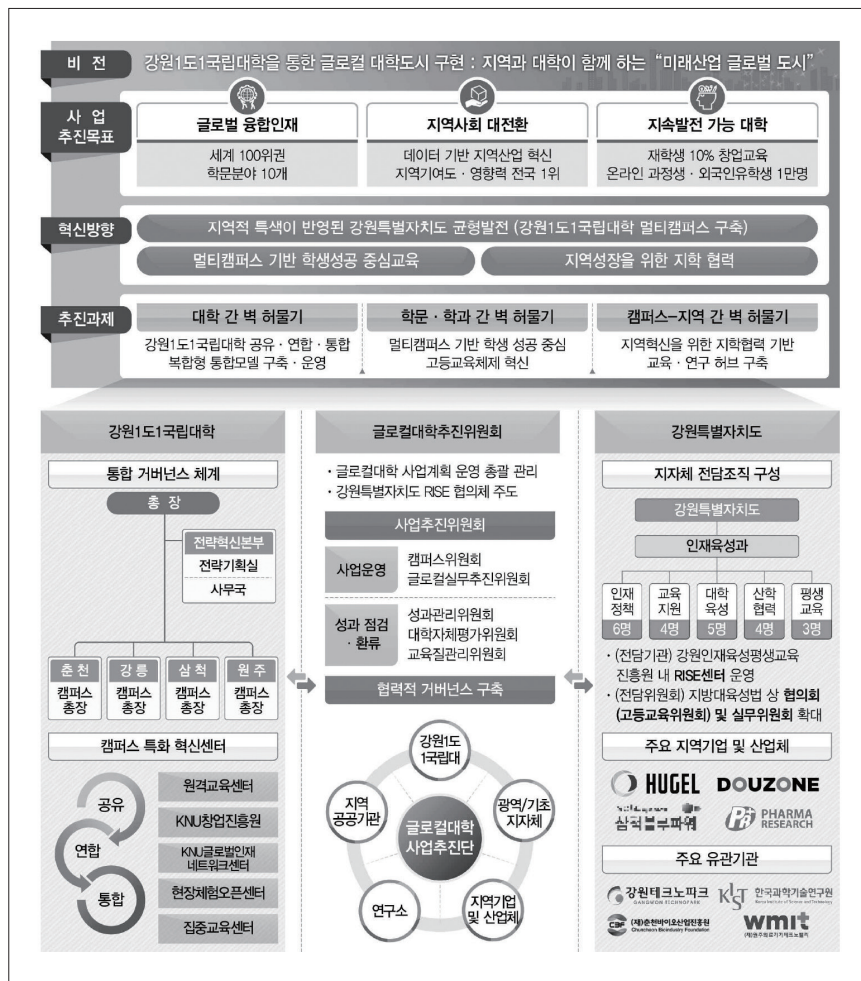


## 강원대-강릉원주대의 글로벌대학 사업 분석

### 1. 지역 네트워킹과 AI 기반 플랫폼 구축 전략

- 강원대-강릉원주대의 글로벌대학 사업은 강원 1도 1국립대 통합과 지역별 특성화된 캠퍼스, 학생 성공 경험과 지역의 지속 성장을 이끄는 멀티 캠퍼스 기반의 대학 도시 구축의 비전을 제안함(그림 4 참조)
- 본 사업은 3대 추진 과제로서 대학 간 장벽, 캠퍼스 내 학문·학과 간 장벽, 캠퍼스와 지역 간 장벽 허물기를 제시하며, 강원도와 4개 도시(강릉, 원주, 춘천, 삼척), 지역 기업 및 연구소도 같이 참여하는 글로벌대학 사업 추진단(RISE 연계)을 운영할 계획임

■ 그림 4 - 강원대-강릉원주대의 글로벌대학 사업: 비전과 목표 및 추진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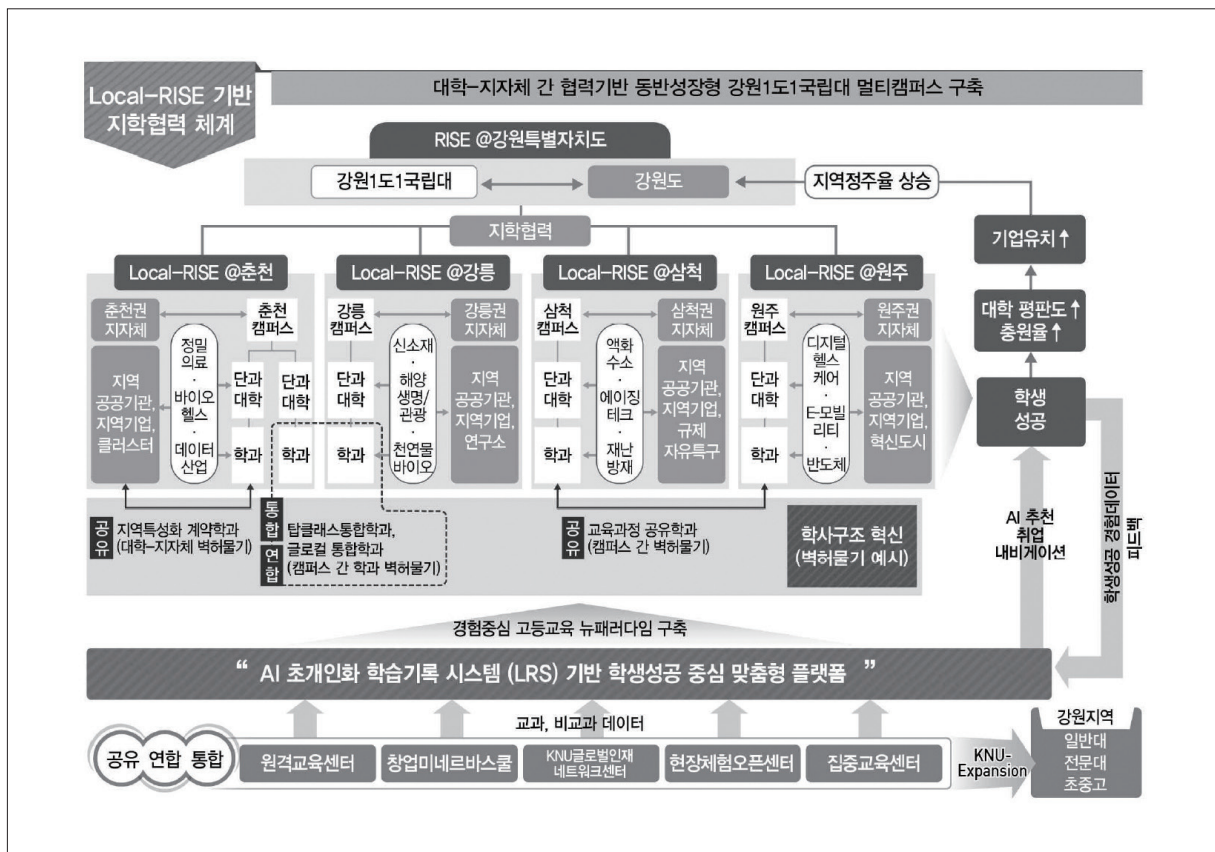


출처: 강원대, 강릉원주대(2024) 자료 편집



- 본 사업은 강원 1도 1국립대의 멀티 캠퍼스 시스템 구현을 위하여 캠퍼스별 특화 학문 분야 및 산업을 선정하고, 학생들의 학습과 성공 경험에 기반하여 지역 내 진로 및 취업 설계를 위한 AI 학습 혁신 플랫폼을 제안함(그림 7 참조)
- 강릉 등 4개 캠퍼스는 지역 특성화 학문 발전과 산업 및 연구원, 기관 협력의 강화를 위하여 캠퍼스 내 학과 통폐합과 전공 심화(예: 지역 특성화 계약학과), 캠퍼스 간 구조 조정(예: 세계적 학과 도약을 위한 전공·학과 간 통합학과) 등의 학사 구조 혁신(캠퍼스 내 장벽, 캠퍼스 간 장벽 허물기)을 추진할 계획임
- 학생들의 성공 경험을 이끌기 위하여 전체 캠퍼스에 AI 기반 개인 학습기록시스템(LRS)을 구축하고, 이러한 시스템의 데이터(정규강의, 비교과 활동)를 제공하는 5개 센터(예: 원격 교육 센터, 집중 교육 센터)를 설립하며, 강원권 교육기관(타 대학교 및 각급 학교)과 협력할 수 있음

■ 그림 7 - 강원대-강릉원주대의 글로벌대학 사업 추진: AI 학습 혁신 플랫폼



출처: 강원대, 강릉원주대(2024) 자료 편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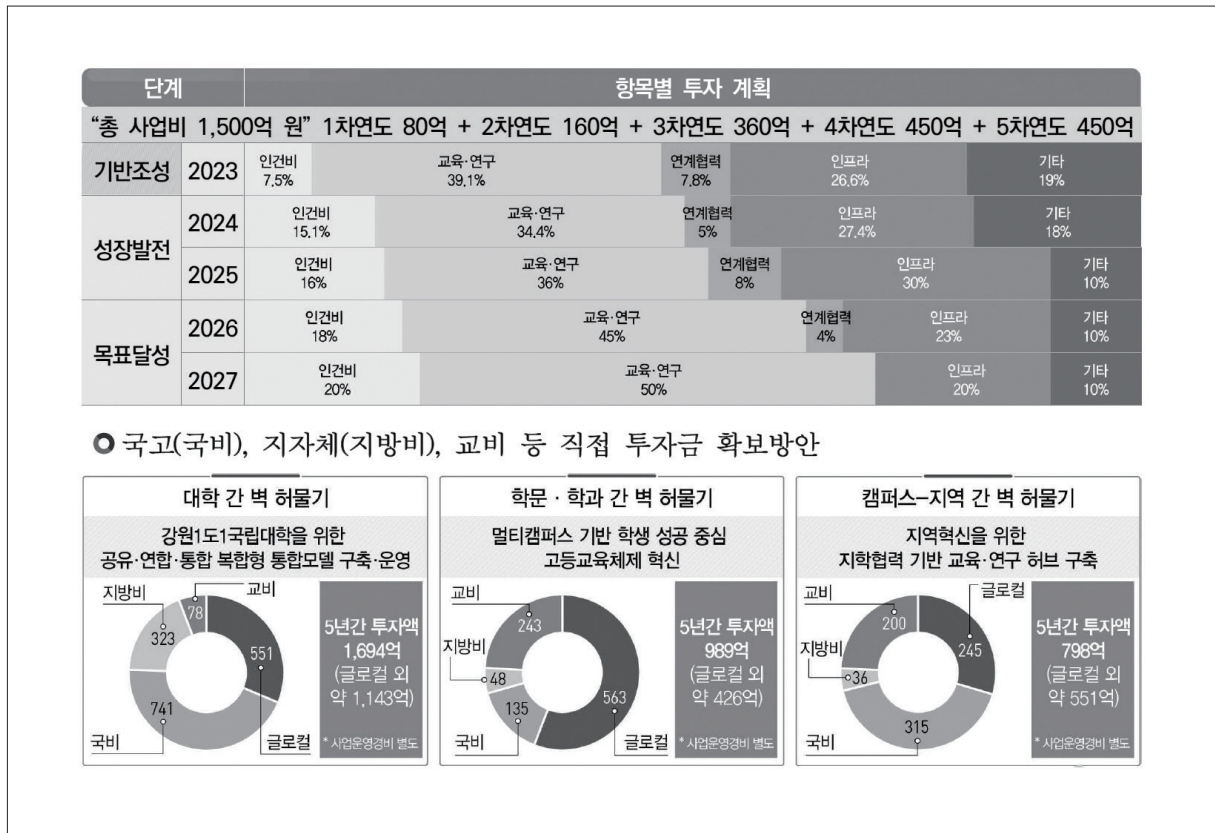




## 2. 예산 편성 및 운영 계획 분석

- 본 글로벌대학 사업에 총 1,50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자될 계획이며, 글로벌대학 사업비 외에 직접 투자금(국비, 지자체(지방비), 교비 등)을 확보할 예정임(그림 9 참조)
- 사업비를 살펴보면, 매년 사업비가 지속 상승하여 3단계로 투자하며(기반 조성-성장 발전-목표 달성), 4~5차 연도(2026~2027년, 매년 450억 원 투자)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교육 및 연구 분야에 연간 최대 50%가 투입될 것으로 전망됨
- 3대 장벽 허물기 분야에서는 강원대-강릉원주대의 통합 및 1도 1국립대에 가장 큰 예산(글로벌대학 사업비 등 총 1,143억 원)이 투입되며, 지학 협력 기반 허브 구축(총 798억 원), 멀티 캠퍼스 기반 학생 중심 교육 혁신체계 구축(총 989억 원) 순으로 예산이 투자될 계획임

■ 그림 9 - 강원대-강릉원주대의 글로벌대학 사업 연간 활용 계획(안)



출처: 강원대, 강릉원주대(2024) 자료 편집

- 글로벌대학 사업은 사업 기간(총 5년, 2023~2027년) 동안 총 1,500억 원의 재정 투자가 예정되어 있으며, 전체 사업(90.6%)과 사업 운영 경비(사업 추진단, 9.4%)로 구성되어 있음 (그림 10 참조)
- 전체 사업은 3대 장벽 허물기(전공·학과 간(37.5%), 대학 간(36.7%), 캠퍼스-지역 간(16.3%) 장벽 제거)의 목표 달성을 위해 추진되며, 총 17개 사업 단위를 기준으로 예산 배분 및 수행될 예정임
- 전체 사업 예산은 소프트웨어 활용 관련 사업에 가장 많이 투자될 계획이며, 세부적인 사업 중 멀티 캠퍼스 기반 학사 재구조화(24.6%), AI 기반 학습기록시스템(LRS) 온라인 교육체계 구축(7.5%), 집중 교육 플랫폼 운영체계 구축(7.1%) 등이 주요 소프트웨어 투자 사업으로 여겨짐

■ 그림 10 - 강원대-강릉원주대의 글로벌대학 사업별 예산 비중(%)

강원1도1국립대를 통한 글로벌 대학도시 구현		
지역과 대학이 함께하는 “미래산업 글로벌 도시”		
대학 간 벽 허물기	학문·학과 간 벽 허물기	캠퍼스-지역 간 벽 허물기
강원1도1국립대학을 위한 공유·연합·통합 복합형 통합모형 구축·운영	멀티캠퍼스 기반 학생 성공 중심 고등교육체제 혁신	지역혁신을 위한 지학협력 기반 교육·연구 허브 구축
<b>36.7%</b>	<b>37.5%</b>	<b>16.3%</b>
1-1 강원1도1국립대학을 위한 공유·연합·통합 복합형 통합모형 구축·운영 <b>핵심전략</b> 0.6%	2-1 멀티캠퍼스 기반 학사구조 재구조화 <b>핵심전략</b> 24.6%	3-1 지역-대학 연계 Local-RISE 협력체계 구축 <b>핵심전략</b> 7.7%
1-2 AI 기반 LRS 온라인 교육체계 구축 <b>핵심전략</b> 7.5%	2-2 지속가능한 선순환 학사구조 생태계 조성 <b>관리</b> 2.4%	3-2 지역산업 기반 산학협력 교육·연구 활성화 <b>운영</b> 2.1%
1-3 창업미네르바스쿨 운영체계 구축 <b>관리</b> 9.9%	2-3 기초학문 기반 T형 융합 인재 양성을 위한 전공·교양교육체계 구축 <b>운영</b> 3.5%	3-3 지역 인재 확보·양성을 위한 지원제도 활성화 <b>관리</b> 3.4%
1-4 해외 KNU문화원·국제교류혁신 플랫폼 구축 <b>관리</b> 5.0%	2-4 학생선택권 확대를 통한 학과중심 교육 탈피 <b>운영</b> 3.4%	3-4 산학협력 친화적 교원인사 제도 혁신 <b>관리</b> 0.7%
1-5 학생경험중심 인력양성 체계 구축 <b>운영</b> 6.8%	2-5 학생 성공을 위한 진로 탐색·설계 지원 확대 <b>운영</b> 3.6%	3-5 오픈형 데이터 중심 성과관리 체계 구축 <b>관리</b> 2.4%
1-6 집중교육 플랫폼 운영체계 구축 <b>운영</b> 7.1%	※ '23-27학년도 글로벌대학사업 재정투자 1,500억원 편성 기준 ※ 기타사업운영경비(글로벌대학사업추진단) : 9.4%	

\* 소수점 둘째 자리 올림으로 전체 합이 100 초과 또는 이하일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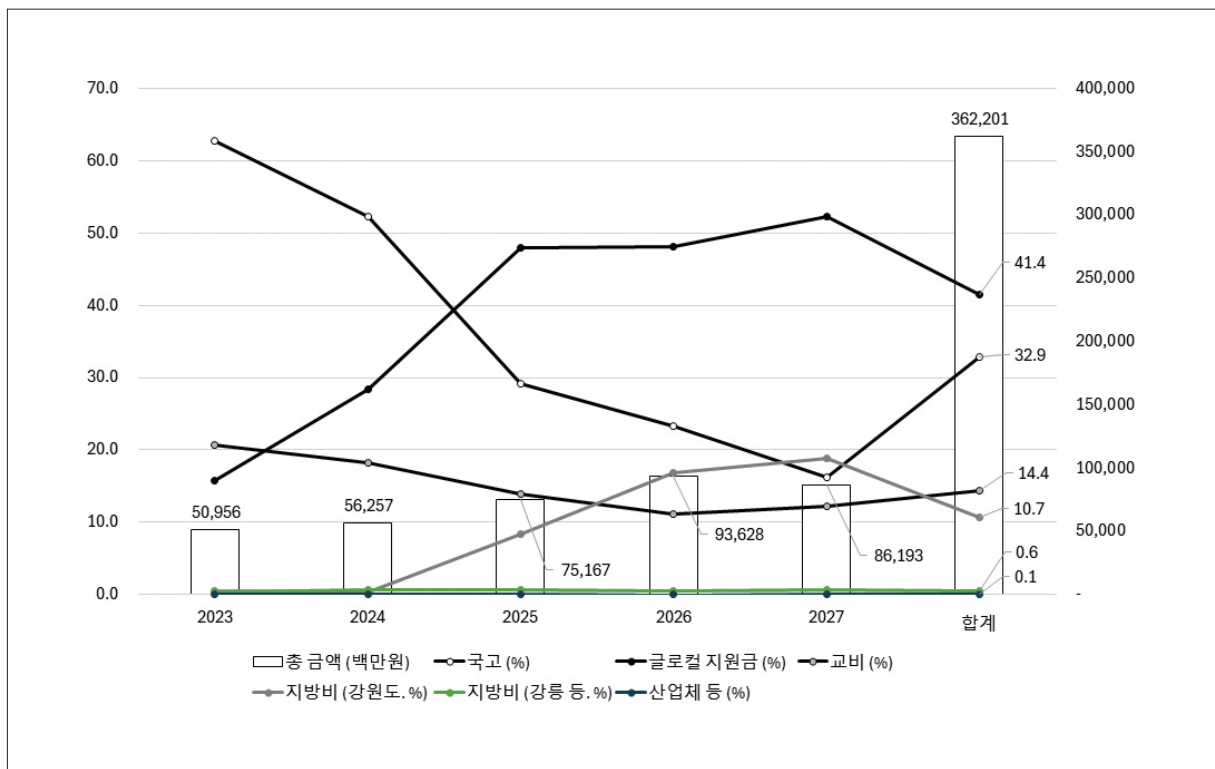
출처: 강원대, 강릉원주대(2024) 자료 편집



● 사업 기간(2023~2027년) 동안 총 3,622억 원의 사업비 및 지역 투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그림 11 참조)

- 글로벌대학 사업 지원금(약 1.5천억 원)과 더불어, 국고(약 1.2천억 원), 교비(약 521억 원), 광역시·도 지방비(약 386.7억 원), 기초지자체 지방비(약 21억 원), 산업체 등(약 20억 원)의 재정 투입을 예상함
- 주체별 예산 비중을 살펴보면, 글로벌대학 사업 지원금(41.4%), 국고(32.9%), 교비(14.4%), 광역시·도 지방비(10.7%), 기초지자체 지방비(0.6%), 산업체(0.1%) 순으로 구성됨
- 연도별 예산 투입에서는 사업 4차 연도에 가장 많이 투자되며(약 936억 원), 1~4차 연도에 계속 예산 투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그림 11 - 강원대-강릉원주대의 글로벌대학 사업 예산의 연도별 계획(안)



출처: 강원대, 강릉원주대(2024) 자료의 저자 분석 및 정리

## 향후 과제 제안

- 강원대와 강릉원주대는 2023년 선정된 글로벌대학 사업을 추진하면서 강원 1도 1국립대(양 대학교 통합)와 4개 캠퍼스(강릉, 원주, 춘천, 삼척) 시스템 구축, 3대 원칙(공유와 연합 및 통합) 및 3대 장벽 허물기 과제(캠퍼스 내 전공·학과 간, 캠퍼스 간, 캠퍼스와 지역 사회)를 수행하고자 함
- 본 사업은 5년 동안 총 1,500억 원의 글로벌대학 사업비가 투입되며, 그 외 다른 자원(국고, 교비, 지방비(강원도, 4개 지자체)와 산업체 등)을 포함하면 총 3,622억 원의 투자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 소프트웨어 구축 및 활용 사업에서는 멀티 캠퍼스 기반 학사 재구조화(글로벌대학 사업비 중 24.6%), AI 기반 학습기록시스템(LRS) 온라인 교육체계 구축(7.5%), 집중 교육 플랫폼 운영체계 구축(7.1%)이 가장 큰 사업으로 여겨짐
- 본 사업은 AI를 활용한 초개인화 학습기록시스템(LRS)과 학생 성공 경험 맞춤형 플랫폼을 구축하며, 5개의 센터(원격 교육 센터 등)를 통해 데이터 확보 및 관련 사업을 수행할 계획임
- 본 사업은 대학교 및 지역 경쟁력 향상과 지역 맞춤형 우수 인재 양성 및 정착을 위해 4개 캠퍼스, 지방 정부, 지역 산업계가 RISE와 글로벌대학 사업 추진단에 참여하여 사업 목표 및 프로그램을 함께 기획하고, 지역 예산 집행과 행정 지원을 병행하며 관련 규제 등을 철폐할 예정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사업 추진을 위해 강원 지역 내 캠퍼스 격차 심화와 지역 소멸 위험 가속화 우려 해소, 지역 사회의 반대 여론 완화, 강원도 내 타 대학과의 협력 등 여러 현안 과제를 해결해야 함
- 먼저, 강릉시와 삼척시에서는 1도 1국립대 통합과 그에 따른 춘천 캠퍼스 중심의 대학교 구조 조정에 대한 반대와 우려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 현재 양 대학교의 수도권 출신 학생이 상당한 상황(예: 70% 수준)이며, 통합 강원대 출범 이후 수도권에 가까운 영서 캠퍼스(춘천, 원주)의 학생 쏠림 현상과 영동 캠퍼스(강릉, 삼척)의 급격한 학생 감소 및 지역 침체가 우려된다는 전망이 있음(이경희, 2024; 김보람, 2023)
  - 2006년 강원대학교와 삼척대학교의 통합 후, 삼척 캠퍼스의 대학생은 8천 명에서 5천 명 수준으로 급감함(김보람, 2023)

- 다음으로, 양 대학교 및 캠퍼스 간 유사·중복학과가 어느 정도 있는 만큼, 통합 대학교 출범과 구조 조정이 어려울 것이며, 그에 대한 대책도 명확하지 않아서 통합에 대한 걱정과 통합 후 갈등이 계속될 것이라는 예상도 있음(이경희, 2024; 송혜림, 2024)
  - 예를 들어, 통합 강원대 출범(2026.3.)을 위해 춘천 캠퍼스(강원대)에 관련 조직(전략 혁신 본부 등)을 신설하고 해당 인력 확보를 위해 강릉 캠퍼스(강릉원주대) 공무원의 36.5%(27명)를 춘천으로 이동시키려는 강원대의 계획에 강릉 캠퍼스와 지역 사회가 크게 반발하고 있음(조연주, 2025)
- 아울러, 강원도는 저출산과 수도권 근접성 등으로 인해 2017년부터 인구가 계속 감소하여 151.7만 명 수준인데(엄기숙, 2025), 양 대학교를 포함해 강원도의 대학교(전문대 이상)가 14개로 많은 상황에서 대학 간 연합 등 구조 조정이 더 많이 필요함
- **교육부의 글로벌대학 사업은 향후 2년간 10개 사업을 선발할 계획이며, 이미 강원도에서는 2개 사업(3개 대학교)이 선정되었고 단독으로 해당 사업이 미선정된 광역시·도가 있으므로, 선정된 강원도 대학들의 더 많은 노력과 성과 확산이 중요한 시기임**
- 강원대와 강릉원주대는 향후 3년의 사업 기간(2025~2027년) 동안 영동·영서 지역 및 4개 캠퍼스 간 불협화음과 예상되는 갈등을 극복하고, 애초에 계획한 대학과 강원도·시들의 경쟁력 향상, 공유·통합·연합의 원칙과 AI 기반 멀티 캠퍼스를 충실히 실현하는 것이 필요함

## 참고문헌

- 강원대, 강릉원주대(2024), 2023년 지정 글로벌대학 30 최종 수정 계획서
- 교육부(2023a), 보도자료: First Mover, K-대학을 향한 담대한 혁신 「글로벌대학 30」 추진방안
- 교육부(2023b), 보도자료: 과감하게 벽을 허무는 대학개혁을 선도할 2023년 글로벌대학 본지정 평가 결과 발표
- 교육부(2024), 보도자료: 2024년 글로벌대학 본 지정 평가 결과 발표, 대학과 지역 동반 성장을 선도할 10개 혁신 모델 선정
- 김보람(2023), 동해·삼척 주민, 강원대 ‘글로벌대학 30’ 사업 반발… “지역 소멸”, KBS
- 김연주(2023), 대학 합치고, 학과 벽 허물고…1,000억 받는 글로벌대학 10곳 보니, 조선일보
- 배상훈 외(2024), 정책연구-2023-26-지방대학 경쟁력 강화 방안 연구-글로벌대학 30 혁신기획서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 연구재단 보고서
- 송혜림(2024), 강원대-강릉원주대 통합 진통, G1 방송
- 엄기숙(2025), 강원 인구 ‘150만 붕괴 위기’…지난해 10,000명 감소, KBS
- 원형민(2023), [그래픽] 글로벌대학 30 추진 주요 내용, 연합뉴스
- 원형민(2024), [그래픽] 2024년 글로벌대학 선정 결과, 연합뉴스
- 이경희(2024), 강원대-강릉원주대 글로벌대학 통합 2년 차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나, U’s Line
- 이재윤(2023), [그래픽]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구축 계획, 연합뉴스
- 이재윤, 원형민(2023), [그래픽] 2023년 글로벌대학 지정 현황, 연합뉴스
- 조연주(2025), 통합 강원대 ‘글로벌대학’ 뼈격…직원 배치 이견, KBS
- 통계청(2023.12), 보도자료: 장래 인구 추계: 2022~2072년